

2019년 8월 9일 배포 시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농식품부 원예경영과 과 장 김형식(044-201-2251), 사무관 정현주(2261) / 제공일: 8월 9일(총 1매)

걱정없이 농사짓고 안심하고 소비하는 나라

## ☐ 국화꽃 수출 '뚝' 끊겨...화훼농가 '울상' 보도는 사실과 다름 [MBC 8.9일 보도에 대한 해명]

- 정부는 검역강화 등 일본의 한국 농식품 수입규제 우려에 대해 모니터링을 지속하는 한편, 비관세장벽 애로 상담센터 운영, 수출 통관지원, 점검회의 개최 등 대비 중에 있습니다.
- 8월 9일 MBC <日국화꽃 수출 '뚝' 끊겨...화훼농가 '울상'> 제하의 기사 일부가 사실과 달라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.



### 언론 보도내용

- ☐ 경북 상주시 국화 생산농가에서는 일본 내 헌화용 수요가 가장 많은 시기(오봉절)임에도 일본의 국화 주문량이 없는 상황이라고 언급하며, 일본의 수출 규제 영향이 아닌지 우려



### 농림축산식품부 입장

- ☐ 사실관계 확인 결과, 對일 국화 주문량이 없다('뚝' 끊겼다)는 것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.
- 올해 8월(8.1~9.) 對일 국화 전체 수출량은 약 669천본 정도로, 전년 대비 약 9%정도 감소하였으나, 이는 일본내 국화 생산이 증가하여 수출되는 가격이 낮아졌기 때문입니다.
- 일본의 수출 규제 영향으로 국화 주문량이 없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.